



건강뉴스

건강편지

퀴즈

성과사랑

다이어트

"한국, '낙태죄' 아니라 '낙태약' 필요해"

연희진 기자

(miro22@kormedi.com)

가- 가+

[주장] 네덜란드 임신 중단 활동가 레베카 고퍼츠



주식초보 "이것" 아는순간.. 손해는 없다!

"비만세균" 발견!! 살찌는 이유가..충격!

낙태죄 위헌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먹는 낙태약' 도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낙태죄에서 재생산 건강으로'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네덜란드 임신 중단(임신 중절, 낙태) 활동가 레베카 고퍼츠가 참석해 낙태죄와 임신 중단을 놓고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약물적 임신 중단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	상 위험
면:	산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사실 임신 자체가
리:	박했다.
살:	고성 사망률은 10만 명의 출생아당 11명이다. 또 임
신:	= 질환이 있다. 임신부의 5~8%는 임신성 고혈압 질
환을 앓고, 임신부 1000명	간우덴스 5 7명은 시브저매 형저증은 안는다 시
부정맥 혈전증은 개발도상	후어2000



LPG차량 장기렌탈하고
공짜로 가져가세요!!



사망 원인이다.

미국의 의료 시술별 사망률을 보면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합법적 인공 유산 사망률의 100배 정도다. 임신 중단보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임이나 잘하라고?

임신 중절을 하기 싫으면 피임을 잘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고펀츠는 "완벽한 피임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경구 피임약도 2%의 임신 위험이 있다. 레베카가 활동하는 임신 중단 원격 의료 서비스 '위민 온 웹'을 이용해 한국 여성 1328명을 분석했을 때, 원치 않은 임신의 이유 가운데 49.5%가 피임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베카는 "피임에 실패해서 임신했을 때의 백업 장치로도 임신 중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한 여성 가운데 약 22%가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 임신 중단 시술은 매년 5600만 건으로 추정되며 미국에서 단일 시술로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술이다. 임신 중단 자체가 드문 경험이 아닌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안전한 약물적 인공 유산 도입 시급

임신 중단 조치로는 약물 인공 유산과 수술이 고려될 수 있다. 둘의 안정성과 효과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신 중단에 사용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은 2005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됐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67개국 의약품 당국에 등재될 만큼 안정성이 인정받은 의약품이다.

약물 요법을 택한다면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며, 의사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 편한 상태에서 임신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신 중단의 선택지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합법적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 및 종합 대책 수립'에 따르면 임신 중단 방법 가운데 약물 인공 유산은 0.8%에 불과하다.

약물 인공 유산은 임신 초기 10주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성공률도 약 9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전체 임신 가운데 15~20%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혈만 발생하며 합병증은 매우 드물다.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임신 중단에 사용하는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캐나다는 별다른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프랑스는 조산사가 처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윤정원 여성위원장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임신 중단 시술도 소중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신 중단의 합법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와는 별개로 현재 합법적 사유로 임신 중단이 가능한 사람에게도 약물 요법의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pim pic/shutterstock]

[관련기사]

[▶ 잠자리도 나 홀로...혼자 하는 관계에 중독된다](#)

[▶ 관계 시 절정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7가지](#)

- ↳ 혈당 낮추는 뜻밖의 먹을거리 5
- ↳ 뱃살 안 빠지는 뜻밖의 이유 6
- ↳ 타고난 성격도 바꾸는 무서운 질환 7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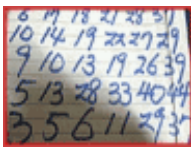
AD

몸속 "비만세균" 빼내면 똥뱃살 짹~빠진다!!
 탁재훈, 27억재벌女와 "초호화생활" 포착?! 화제!
 "임플란트" 진짜 하루만에 끝내..의학계 발각!

- ↳ 여대생의 성욕해결!"성기반지" 낀 오빠가 최고!
- ↳ "이것" 낀 대물정력男! 영계女 오르기즘&떡실신!
- ↳ 오빠"성기반지" 끼면 대물 변강쇠로 변신! 알지?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http://www.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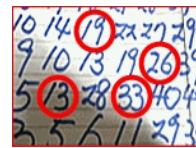
공유하기



이번주 로또 1등
예상번호"2,11,31.."



무조건 "-10kg" 빠진
미친감량비법?



이번주 "로또" 이 번호
꼭 나온다!"13,19,26.."

“장에서 生生한!”

프로(유산균)와 프리(먹이)를 한 곳에



알짜 정보

- ▶ 女의사 "성관계" 시 그곳 클수록 좋아!.. "충격"
- ▶ (긴급) "급하게" 5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
- ▶ 백만원으로 "46억" 번 주식女, 길에서... 충격!

{대생의 성욕해결!"성기반지" 낀 오빠가 최고!

- ▶ 임플란트, 이젠 1개 10분이면 끝난다.. 충격

실시간 검색정보

- ▶ 여보 "질쫘쫘이" 했더니 잘 느껴져..!
- ▶ 문자1통에 "41억"번 주식 대박女...? 충격!
- ▶ 이번주 "로또추첨", 이 번호 꼭 나와 "4,11,16..
- ▶ 남자가 결혼상대로 생각하는女? TEST
- ▶ 대중상 여신 "김사랑" 몸매비결 알고보니..!
- ▶ "아랫도리" ㅇㅇ끼우고 관계시간 '10배' 증가!

인기기사 #1

인기기사 #2



뱃살 안 빠지는 뜻밖의 이유 6



위태로운 한국인의



타고난 성격도 바꾸는 무서운 질환 7가지



중년 이후 건강 관



건강에 아주 좋은 단순한 생활 습관 7



몸무게 5% 줄면 (



낙태죄, 일제와 종교가 만든 '괴물'



고기만 먹으면 땀(



완두콩을 얼려라? 폭염 대비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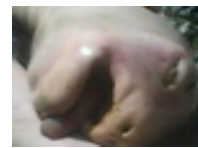
여름 과일 '수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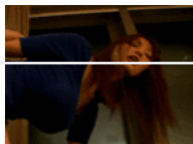
삼푸 대신 "이것" 감았더니 98%발모!



2호선 만취女!! 영상유출..경악!



살찌는이유밝혀져 비만'똥보군'경악!



알바女, "32억"받고 사장과 XX행위 들켜?!



2호선 만취女!! 영상유출..경악!



男女커플 "싸움" 주식 32억때문?...헉!

오늘의 쇼핑정보



Tip van TUI: Miami

Nu extra voordelig op vaka
naar Miami. Bekijk het aan!

-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PC화면

© KoreaMediCare Corp.

